

### 13. 수화물은 어떻게 되었는가?

만약 우리가 믿는 대로 KAL 007기가 모네훈 상 수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면 (9번 질문 참조), 승객들이 객실로 가지고 들어간 수화물들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했을 수도 있다. --비행기는 승객들과 수화물들이 옮겨질 만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수면에 떠 있었을 것이다. 화물칸에 있는 수화물들은 비행기가 떠 있는 동안 옮겨질 수 없었을 것이다. 소비에트 연방 형무소/정신병자감옥/ 강제노동 수용소 연구 센터로 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현장 목격 증인들 보고와 잠수부들의 보고에 근거하면, 우리는 모든 수화물들이 옮겨졌다고 믿는다. 이는 화물칸 문이 열리면서 비행기가 가라앉았을 때 잠수부들에 의해 행해졌을 수 있다. 또 다른 가능성은 이 특정 비행기가 주갑판 (main deck) 에 특별 화물 컨테이너를 갖추고 있어 갑판 (deck) 아래 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. 대한항공은 적어도 16대의 비행기에 이를 갖추게 했다. 우리는 이 특정 비행기가 이를 갖추어 있었는 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.